

# “지역 영화인들 치열한 기록 담았죠”

‘썬 1980’ 전 편집장 김수진 씨  
위경혜·조대영·한재섭 씨 등 대담  
인터뷰집 ‘광주 영화인 열전’ 발간  
5·18 비디오·독립영화 등도 수록



광주 영화잡지 ‘썬1980’ 김수진 전 편집장이 최근 지역 영화인들과 진행했던 인터뷰를 엮은 ‘광주 영화인 열전’을 펴냈다. 매거진 발행 당시 기자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던 김 씨의 모습.

“광주 영화인 열전”은 ‘썬 1980’ 창간준비호부터 올해까지 6년 간 잡지를 펴내며 진행했던 인터뷰를 엮은 책입니다. 지역 영화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광주에도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죠.”

로컬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광주 영화 열전’ (키노북스)을 펴낸 김수진 씨가 밝힌 출간 소감이다. 광주 영화비평지 ‘썬1980’ 창간호부터 올해 선보인 17호까지 진행한 인터뷰를 모아 책을 발간한 것.

전남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문화전문대학원 문화예술기획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그동안 ‘무비스트’, ‘코아르’ 등 영화 매거진에 글을 게재했다.

김 씨는 온갖 부귀 영화(榮華)보다 그저 필름과 영사기를 즐기는 ‘영화(映畵)’ 한 편이 좋은 사람이다. 돈 안 되는 영화 공부와 일에 매진하다 못해 책까지 펴냈다.

그는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로 취직하는 바람에 잠시 고향과 ‘거리 두기’를 했지만, 다시 돌아온 뒤 지역 영화계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현장을 발로 누볐다”고 했다. 광주로 유턴했던 초기에는 마땅한 영화관련 시설, 단체 등이 부족해 이곳이 ‘시네마 불모지’로 생각됐다고 한다.

그러나 독립영화관 개관, 정릉영화상 수상자 배출 등 지역영화계가 활성화하는 모습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다. 이번 인터뷰집은 서울에서 영화기자 등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녹아 있다.

‘열전(列傳)’을 기치로 내건 만큼, 지역 영화계에서 활동해 온 여러 인물의 전기를 다뤘다.

2018년 지역 최초로 정릉영화상 단편영화상을 수상한 허지은-이경호 감독(수상작 ‘신기록’) 인터뷰를 필두로 지역 안팎에서 독립영화감독으로 활동해 온 오태승과의 대담을 수록했다.

광주일보 지면에 ‘호남 극장 영화사’를 연재 중인 위경혜 학술연구교수(전남대 호남학연구원)를 비롯해 김재희 광주여성영화회 집행위원장, 김지연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전 이사장과의 대화도 인상적이다. 광주독립영화관 한재섭 관장의 생각은 ‘광주 영화문화의 산증인’이라는 주제로 담아냈다.

책은 최남주, 정준재 등 일제강점기에 활약했던 지역 영화인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들의 명맥을 계승하면서 1980년 5·18의 진실 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광주 비디오들에 대해서도 토크한다.

아울러 1990년대 극단 토박이가 제작한 광주 5월 소재의 실험적인 독립영화들, 2000년대 우후죽순 생겨난 광주의 영화동아리들에 대한 기록도 수록했다. 성미란 영화 분장사와 간판쟁이 박태규 회백, 백종득 감독과 영화인 조대영과의 대담은

읽을 거리라.

“지역 영화인들에 대한 공적이면서도 사사로운 기록인 열전(列傳)이자 주류 영화계에 대항하는 지역 영화인의 열전(熱戰)으로 책이 기능하길 바랍니다.”

그는 출간을 계기로 멀티플렉스(복합영화관)로 대변되는 거대 자본시장과 주류 영화계에 대항하는 지역·독립 영화가 자생력을 갖추길 바란다. 그러면서 “이 책이 ‘광주 영화인 열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광주영화계 전체를 대변한다는 오해가 남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책을 펴낸 출판사 ‘키노북스’도 이목을 끈다. 키노북스는 김 씨가 최근 설립한 영화전문서적 독립출판사다.

그는 “자가 베르토프의 ‘키노-아이’ 정신을 모토로 삼으면서 영화의 눈으로 세상을 그리는 책들을 펴내고 싶다”는 말로 출판사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폴란드 영화감독 지가 베르토프는 전통적 내러티브에 종속됐던 영화의 영속성을 깨뜨리자는 목소리를 내 왔다. 앞으로 그가 펴낼 책들이 베르토프의 편집된 몽타주처럼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 널리 향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국악 스승 청계 이명식 선생을 잇다

두리동국악예술단 ‘제자 발표회’ 내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지난 ‘청계 이명식 제자발표회’ 공연 장면. <두리동 국악예술단 제공>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명식 고수는 판소리 고법 보유자 청암 김성권 문화에서 고법을 이수한 뒤, 2009년 전주 전국고수대회에서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그는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청계고법연구원’을 설립하고 두리동국악예술단을 결성해 많은 제자가인을 양성했으며,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고법 반 강사로 20년간 재직하며 국악전승활동에 전념해 왔다.

이 고수로부터 국악을 전수받은 두리동 국악예술단원과 빛고을국악전수관 수강생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선보인다.

두리동 국악예술단이 오는 20일(오후 3시)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펼치는 ‘제4회 청계 이명식 제자발표회’에서다.

개막 공연은 합복병창 ‘사철가’와 ‘심청가’ 중 ‘배의 밤’, ‘고고천변’으로 막을 올린다. 연주를 맡

은 두리동 합복병창팀은 지난해 낙안읍성 전국국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천년전주 전국국악대회에서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남도민요팀도 관객들을 만난다. 이윤자, 최성례 등이 출연해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등으로 우리 신명을 더한다.

이어 ‘흥보가’ 중 ‘돈타령’, ‘심청가’ 중 ‘섰던 자리에’, ‘가야금병창’ ‘셋노란 저고리’, ‘노들강 초록물’ 등을 들려준다. 김영자의 하모니카 연주 ‘용두산 에레지’, ‘안동역에서’를 비롯해 전 관객이 어우러지는 풍물 한마당 시간도 있다.

이명식 고수는 “우리 지역에서 열렸던 명인 명창 추모회 등 다양한 공연에 출연했던 예술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며 “이번 발표회를 통해 더 많은 관객들과 함께 국악을 향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AI 반려동물과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고현경 작가 ‘캡틴과 푸른 A의 비밀’ 동물 윤리에 대한 질문 던져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1000만인 시대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관련 사업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반려동물은 이제 친구이자 가족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AI 반려동물과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 AI 동물을 모티브로 한 그림책이 발간됐다.

고현경 작가가 펴낸 ‘캡틴과 푸른 A의 비밀’ (보랏빛소)은 동물 윤리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미래의 어느 날, AI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민호는 반려견 캡틴이 죽자 캡틴을 닮은 AI 개를 키우기 시작한다. 그러다 친구의 AI 반려견이 실종되는 상황을 맞는다. 민호는 유기동물 구조에 헌신하며 평판이 좋은 김 박사를 찾아가는 등 그곳에서 민호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된다.

오늘의 시대는 인공지능 AI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과학문명이 발달했다. 챗GPT와 AI 로봇을 활용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만큼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 AI를 매개로 디페이크, 보이스피싱 등으로 교묘하게 합성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도 있다.



이번 작품에서도 부정적인 요소들이 서사화의 기제가 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 인간과 AI 반려동물이 우정을 나누고 가족 관계를 이루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

고 작가는 “인젠가 일상화될 인간과 AI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상상력을 가미해 서사화했다”며 “AI 로봇과의 우정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일지 등 다양한 상상과 의문을 작품에 투영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 작가는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기초과학 우수상과 나눔문화 그림책 신인상을 수상했다. 그림책 ‘크리스마스 선물은?’, ‘흥! 첫! 뽕이다!’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우송문학 19번째 동인지 발간

‘켜켜이 엮어가는 시간’...시조·동시·동화 등 70여 편 신작 담아

우송문학회(회장 차상영)가 19번째 동인지 ‘켜켜이 엮어가는 시간’ (코리아BOOKS)을 펴냈다.

이번 동인지는 시인인 전원범 광주교육대 명예교수의 시 창작 강좌 ‘나의 시법’을 시작으로 회원들의 시 39편, 시조, 동시, 동화, 수필, 가사, 소설 등 모두 70여 편의 신작들이 담겼다.

전 교수는 ‘나의 시법’에서 “시는 일상의 말이나 시인의 감성을 통해서 표현된 느낌의 언어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언어

다”며 “시인의 감동이 전달되어야 하고, 시인의 철학이 옮겨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좋은 시는 질서화된 구조로서 의미 세계의 확산이 가능하고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한 해석이 있을 때 이뤄진다”며 “언어의 조탁에 매우 힘을 기울여 왔으며 서정시의 본질에 충실해 왔고 공감하기 쉽게 쓰려고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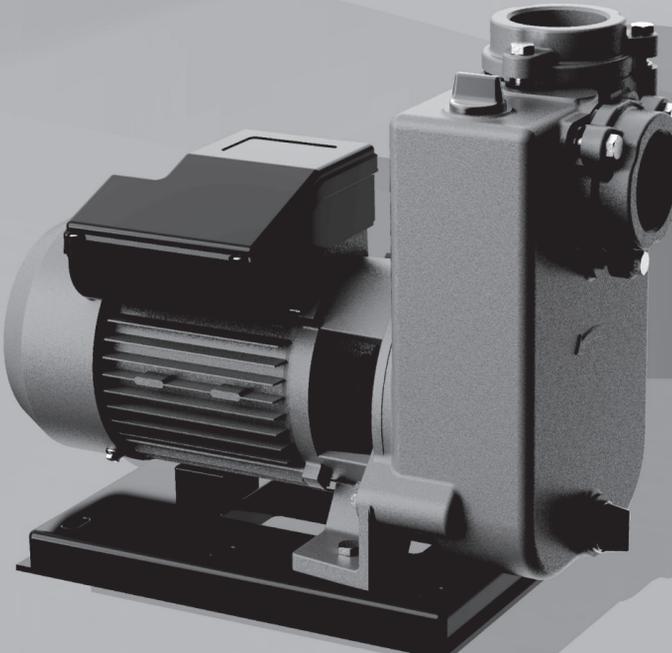
18회 우송문학상을 수상한 정관용 전남문인협회 회장의 ‘삼문산 진달래’, 양은주 시인의 ‘어떤

희망’ 등 작품도 실렸다. 올해 19회 우송문학상 수상자는 담양한빛마을학교 대표 서정화 시인이 선정됐으며 지난달 24일 우송문학제 ‘시어 노래하러’에서 시상식을 갖기도 했다.

한편 우송문학회는 지난 2003년 전원범 교수의 제자그룹인 글밭, 다엽, 금초, 명금, 은목, 솟불문학회 등이 모여 창립했으며 시창작 수업, 합평회, 문학제, 문학기행, 동인지 발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